

당당히 승리하는 후대

다니엘 1:8-21, 사도행전 4:23-31

최정웅 목사님

이번 세계렘넌트대회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1만 7천 명이 모였는데, 나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킨텍스가 도떼기시장처럼 보였다. 킨텍스 측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아서, 2관은 우리가 빌리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냥 빌려주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 주어서 우리가 덥지 않게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렘넌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당당히 승리하는 렘넌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웃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모두가 빵 터질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도저히 그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이라도 다같이 크게 한번 '하하하' 웃어보자. (웃음) 앞으로는 하나씩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웃을 상황이 아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망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쳐들어와서 왕을 폐하여 포로로 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약 9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거의 천리 길을 끌려가게 되었다. 어린 소년으로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다니엘이 이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끌려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과, 그 뒤를 이어 나라를 차지하게 된 다리오 왕을 섬겼으며, 그 후에 나타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배경으로 알아둘 것은, 느부갓네살의 정책이다. 128도나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게 다민족 국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는가 해서, 큰 우상을 하나 만들고 종교를 섬기게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정책이었다. 이게 일본에서 했던 신사참배 강요와 같은 사상이고, 북한에서 김씨 왕조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 바사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이었던 고레스는 다문화 정책을 썼다. 모두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계속 믿고 그 문화를 계속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정책이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를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민족에게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고레스의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

1.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견했던 것

이 세 친구가 알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긴 여정을 걸어서 끌려가면서 여호와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찌하여 저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눈이 뻘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참담한 광경을 머릿속에 넣어두었을 것이다. 통곡하고 싶었는데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마음껏 울 수도 없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장과 시대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짜 이유가 발견된 것이다.

(1) 사실 이 소년들은 잘못이 없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더 중요한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망했는가. 나무도 땅을 떠나지 않고, 새도 하늘을 떠나지 않고, 물고기도 물을 떠나지 않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면 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년들이 그것을 본 것이다.

(2) 그뿐만 아니다. 가서 보니까 유대나라는 굉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작은 나라였다는 것이 보였다. 바벨론에 가보니까 건물도, 나라도 끝이 없고 크다. 한 나라가 그러니 세계는 얼마나 넓겠는가.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들이 느낀 것이 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애굽을 깨달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보고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만 사랑하지 않는다. 저들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인간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넓은 땅에 끌려가는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포로가 되어서 끌려 온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렘넌트, 세계복음화해야 할 렘넌트로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두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린 것이다.

2.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한 방법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재창조는 아주 대단한 학자나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 일을 해 낼 힘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셨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네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울기도 하면서 서로 격려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뛰어난 렘넌트들이었던 것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광대한 땅을 다스리고 차지하려다보니, 인재를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립학교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 가운데 뛰어난 청소년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거기에 뽑히게 되었다. 그래서 가서 공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한다. 거기에 고기도 많고 맛있는 술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했는가? 본문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온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약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망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뜻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자고 결단한 것이다. 뜻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말했다.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 주제에,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환관장은 또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다. 환관장이, "너희들이 왕이 내린 좋은 음식을 안 먹고, 몸이 약해진다던지, 병에 걸리면, 너희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나에게 죄가 내

려오고, 내 목이 날아가게 된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10일 동안 시험적으로 채식을 주셔서, 그래도 괜찮다면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 주셨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보통 10일만 잘 먹어도 얼굴이 환해진다. 나는 10일 금식을 해 봤더니 당장 8kg가 빠지더라. 그렇게 하면서 채식을 했으니까, 머리는 더 맑아졌다. 그렇게 해서 10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청소년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고 충기도 더해졌다. 더 좋아지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다.

(1) 이들이 ‘다시 한 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약으로 돌아가자’하고, 그런 약속을 다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간 것이다.

(2)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비벨론의 많은 우상과 싸우게 된 것이다. 영적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사단은 아직 살아있다. 머리통은 박살나서 회복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이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민족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신하와 동료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는데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낸 사람이 다니엘이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알아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감독관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 언약을 깨달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된다. 요셉은 노예로 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그 가정을 살렸다. 어렵지 않은 것이다. 노예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다. 작년에 삼일절 기념행사를 시청광장 앞에서 했다. 봄이었지만 추웠다. 추우니까 할아버지들, 아저씨들도 다 지파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과 램넌트들이 남아서, 그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다 주워서 정리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을 방송으로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놀랍게도 쓰레기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한 군데에 다 모았다. 어디서 보았겠는가.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고 재창조의 문화인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번에 세계렘넌트대회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날려있는 휴지가 너무 많았다. 내가 휴지 한 장을 뜯어서 땅에 떨어진 것, 밖으로 빠져나온 것들을 다 주어서 버렸다. 몇몇 램넌트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았다. 내 느낌인데, 그 다음부터 화장실을 가니까 휴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일이고 유일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쉬운 것이다. 여러분이 회사, 직장에 갔을 때 ‘돈 이것밖에 안주는데 일을 하라고 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니까 자기가 할 일을 여전히 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 왕이 본 것이다. ‘너같이 여호와와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우리 참사랑교회가 존재하는 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장로님, 그 분 때문에 우리교회가 바로 섰지.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있는 거지.’ 우리 램넌트들도 ‘나도 그 분처럼 교회를 섬길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식당에서 팔을 걷고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뭘 것이다’ 생각을 한다. 전에 식당 봉사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팔을 걷고 설거지를 하게 되니까 그 모든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하면 된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서밋이다.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13처럼,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되어도 나는 갈 수 있다. 그것도 찢절매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살릴 수가 있었고, 변치 않는 믿음을,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힘으로 된다.” 스가랴 4:6의 말씀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에서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램넌트 후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일 쉬운 것은 램넌트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덮었던 이불부터 개라. 그것이 유일성이다. 군대에서 각을 잡고 침구를 개면 두부 자르는 것처럼 끝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렇게 이불부터 개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전부 깨끗해지게 된다.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까지 전달되었다. 아프리카가 더운 동네라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가서 길을 닦고, 마을을 청소하고, 지붕을 고치고, 전부 이렇게 기본부터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렇게 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운동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된 것처럼 그들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이다. 당당히, 승리하는 후대였던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았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괜찮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자녀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도록,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2)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서밋으로 가는 램넌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한다고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았어’하고 울면, 엄마는 ‘애야, 괜찮아. 너는 국어를 잘하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너는 공을 잘 차지 않냐.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 바보야.’ 할 텐데, 그렇게 한니까 이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치유를 얻으면 서밋으로 갈 수 있다.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 세계렘넌트대회에서 보니까 광고를 할 때 ‘여러분, 넉넉히 할 수 있겠죠?’ 하니까 아이들이 ‘아멘!’ 한다.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램넌트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직장, 사업,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 그러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길이 아니다. 잘못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밋이 될 수 있다. 이 자부심을 계속 키워주어야 한다. 평생 변하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우리 램넌트를 세워 나가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엄청난 배경을 우리가 가졌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문을 나서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참혹한 현장을 파악하고, 자기들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여,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